

교회소식

- 예배 안내
- 12월31일(월) 11 pm 송구영신 예배
- 2019 단기선교
- 일정: 2월18일(월)-22일(금)
- 장소: 혼두라스 렘피라 지역의 라플로레스
- 매일성경과 새해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들

12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김동수 집사 (시 72:1-7, 10-14)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구자금 목사
다음 주 친교: 황인선 사모, 백희진 집사

기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8권 51호

2018년 12월 30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주일 교사 예배	10am / 친교실	유아부	12pm / 친교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교육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중·고등부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여성 성경공부	수 10am / 친교실
전교인 성경공부	목 8pm / 친교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남성 성경공부	토 7:30am / 친교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060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안정자 권사
 봉헌찬송(Offering) ----- “좋은신 하나님” -----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Prayer) ----- 이민영 목사
 성경봉독(Word of God) ----- **계(Rev.) 2:1-7; 17:1-8; 22:1-7,20** ----- 이민영 목사
 설교(Sermon)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1장(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 148 ----- 기세학 집사
 찬양(Choir) ----- “은혜의 주님”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Word of God) ----- **계(Rev.) 2:1-7; 17:1-8; 22:1-7,20** -----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 ----- 인도자
 설교(Sermon)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488장(통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말씀

크리스마스 선물 이사야 9:6; 요한복음 3:16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계절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에는 준 사람의 마음과 품격이 담겨있습니다. 귀한 사람이 귀한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지닌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버려도 좋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고, 하나님의 품격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고, 고귀한 분이시기에 가장 고귀한 예수를 주셨습니다.

귀하신 예수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품격을 믿고 담대하고, 관대하고, 기뻐합니다. “그 풍성한대로”(빌 4:19), 우리에게 모든 것을(롬 8:32) 은혜로 주실 줄 믿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빌 4:6).

선물에는 또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담겨있습니다. 귀한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줍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귀하신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으십니다.

믿고 살도록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만한 분을 주셨고, 살리는 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음직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귀한 이름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십니다.

괜히 잘못 믿었다가 망하게 된 분이 아니라, 믿으면 살게 되는 틀림없는 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믿고 삽시다.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취급 하신 겁니다. 아들을 받을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사람들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믿으면 살만한 분을 받았다면, 괜히 잘못 믿었다가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을만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집니다(요일 4:12).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격을 나타냈다면(요 1:18),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온전해집니다.

선물을 주신 분과 받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이뤄지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로 자라갑니다. 참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Memo